기아차 광주공장 '셀토스' 1호차 나왔다

'소형SUV 셀토스' 양산 기념식
노사 화합 최고 품질 신차 생산

기아차 박래석(맨 오른쪽) 광주공장장과 나태율(맨 왼쪽) 노조 광주지회장 등 임직원들이 2일 광주1공장에서 양산한 '셀토스' 1호차 양산 기념식을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글로벌 소형 SUV(스포츠 유틸리티차) '셀토스' 1호차가 광주공장에서 생산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일 광주1공장에서 박래석 광주공장장과 나태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클래스 소형 SUV 셀토스' 1호차 양산 기념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노사가 힘을 모아 탄생시킨 '셀토스'의 성공적인 양산을 축하하고, 광주공장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명차로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박래석 광주공장장은 "셀토스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힘쓴 광주공장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셀토스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명차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나태율 광주지회장은 "오늘은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탄생시킨 셀토스가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노조는 새롭게 출발하는 셀토스가 우리공장을 대표하고 나아가 기아차를 대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1호차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 '셀토스'는 대범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감성적 가치가 응축된 하이클래스 소형 SUV 콘셉트로 개발됐다.

정통 SUV 스타일을 모던한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과 운전의 즐거움에 주안점을 둔 주행성능은 물론 차급을 뛰어넘는 탁월한 공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탑승자의 감성적 만족감까지 고려한 첨단 신기술의 조화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소형 SUV와는 차원이 다른 독보적인 상품성을 갖췄다.

'스피디(Speedy)'와 '켈토스(Celtos)'를 조합해 탄생한 차명 '셀토스(SELTOS)' 역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래스의 아들 켈토스의 용맹하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당당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외관 디자인은 전장 4375㎜, 전폭 1800㎜, 전고 1615㎜(루프랙 미적용시 1600㎜), 휠베이스 2630㎜의 볼륨감 있는 차체 크기를 지녔고,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판매가격은 ▲1.6 터보 가솔린 모델 트렌디 1930만~1960만원, 프레스티지 2240만~2270만원, 노블레스 2450만~2480만원 ▲1.6 디젤 모델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의 범위 내에서 가솔린 대비 190만원 추가해 책정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셀토스는 고급스러운 내외장 디자인, 공간, 성능, 첨단 사양이 응축된 하이클래스 소형SUV로 하반기 소형 SUV 시장의 기대주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노사가 함께 고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최고 품질의 신차를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셀토스의 사전계약을 받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2.02 (-7.72)	↓ 금리 (국고채 3년)	1.46 (-0.02)
↑ 코스닥	696.25 (+0.25)	↑ 환율 (USD)	1166.00 (+7.20)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부담"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여수산단 기업인 간담회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가 2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연 현장 소통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국가산단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중 영진기술㈜ 대표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은 업종·규모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태 우주종합건설㈜ 대표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진삼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장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근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정책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본 정책 철학"이라며 "우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 기술보증기금 순천지점,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자금·수출·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기업별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제1기 해양에너지 SNS 서포터즈 위촉식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지난 1일 해양에너지 대강당에서 제1기 해양에너지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SNS서포터즈들은 모집 공고와 내부 선발을 통해 28명이 선발됐다. 이들 서포터즈는 1일부터 6개월간 해양에너지 관련 홍보, 취미 생활, 건강 등 다양한 컨텐츠를 자유롭게 해양에너지 SNS에 게시하게 된다.

해양에너지 SNS서포터즈는 해양에너지 공급권역(광주, 전남1개시 7개군) 뿐만 아니라 전국(서울, 경기, 경남, 전북) 거주자도 서포터즈로 선발했다. 특히, 70세 이상인 고령자 서포터즈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며, 세대를 뛰어 넘은 서포터즈 선발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SNS서포터즈 활동의 중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이사는 "해양에너지 SNS는 고객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며, 고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자 SNS계정을 개설했으며, SNS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양에너지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6월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계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취약계층 3년간 성실히 빚 갚으면 채무 95% 감면

8일부터…신용회복위,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등 발표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85~95%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특별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이 연간 35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1397.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택구입부담지수 2분기 연속 하락

광주, 광역시 중 울산 다음 낮아
전남, 경북 제외 전국 최하위

광주·전남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 다음으로 낮았다. 그만큼 주택구입부담이 낮다는 의미다.

2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 주택구입부담지수는 48.3으로, 직전 분기(48.9)보다 0.6포인트 내렸다. 전남은 30.2로 전분기(30.9)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는 광역시 중 울산(45.3) 다음으로 낮았고, 전남은 경북(27.8)을 빼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 평균값은 54.6으로 지난해 4분기(56.6)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 100은 소득의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부담한다는 것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부담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떨어졌다. 이 가운데 제주가 87.7에서 82.7로 내려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16개 시·도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직전 분기 대비 줄줄이 하락한 것은 2015년 1분기 이후 16분기 만에 처음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